

“동서통합지대 조성 이행하라” 영호남 한목소리

전남·경남 시장·군수 9명
동서 화합·상생발전 촉구
광양서 공동건의문 채택

박대통령 지역 핵심공약
10개 선도사업 3년째 제자리
사업 계획·예산지원 ‘감감’

전남과 경남 9개 시·군 단체장들이 남해안권 상생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전남 5개 시·군(광양·여수·순천시, 고흥·보성군)과 경남 4개 시·군(진주·사천시, 남해·하동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난 17일 광양시청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전남 동부 생활권과 경남 서부 생활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2개 생활권역 발전계획수립 용역 보고’와 ‘2015년 제1·2회 예산 편성(안)’ 등 5개 심의안을 협의했다.

회의를 마친 단체장들은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 정부 지원 공동 건의문’과 ‘동서 통합지대 조성’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10개 선도사업, 구체적 계획과 예산 지원 없어=‘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핵심공약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에 “오는 2020년까지 전남과 경남 경계인 삼진강 양안(兩岸)을 동서화합과 국가발전의 신(新)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차인 올해까지 선도사업인 10개 사업 18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실질적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도사업 10개사업은 ▲동서 통합대교 건설 ▲삼진강 경관보전·생태관리 ▲삼진강 뱃길 복원·수상레저 기반조성 ▲삼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협력 강화·축제연계성 강화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



전남과 경남 지역 9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지난 17일 광양시청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양시 제공>



▲삼진강 하늘길 케이블카 설치 ▲남해 동서기록문화 교류단지 조성 ▲남해 국가별 테마거리 조성 ▲삼진강 꽃마중길 조성 등이다.

이에 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해안 남중권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질적인 예산지원 등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개 선도사업에 대해 2016년 정부 재정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하고, 조성사업비 국비 비율을 50%에서 60~8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국회, 정부 부처 등에 건의했다.

◇영·호남 통합적 지역발전 추진=정부는 그동안 삼진강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들을 제시해 왔다.

김대중 정부의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 계획’(1999년), 이명박 정부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2010년), 박근혜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계획’(2013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이러한 계획들은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없는 ‘잠미빛 청사진’에 그쳐 남중권 140만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동서화합과 우호협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남중권의 자자체가 한 목소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져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글로벌 시대 지역간 연계화 협업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늘어나고 있다”며 “남중권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핵심사업 추진에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 9개 시·군이 참여한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수도권과 대청축에 있는 남해안을 집중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 쏠려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창립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양·여수·순천 문화예술 교류 활발

시립예술단 합동 공연·3개시 아우르는 영화산업 등 추진

광양시와 여수, 순천시 등 3개 시가 최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3개 시는 시립예술단 교류 공연을 추진하기로 합의, 대규모 행사 때마다 지역민에게 높은 수준의 합동 공연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광양과 여수는 합창과 국악, 순천은 합창과 극단 등 각 시립예술단 특성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여수 시립극단과 시립합창단, 순천 시립합창단이 지난 17~19일 광양 다압면 일원에서 열린 ‘매화축제’에서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여수 중앙동 일원에서 열린 ‘제49회 여수 전남

거북선축제’에 3개 시 예술단의 합동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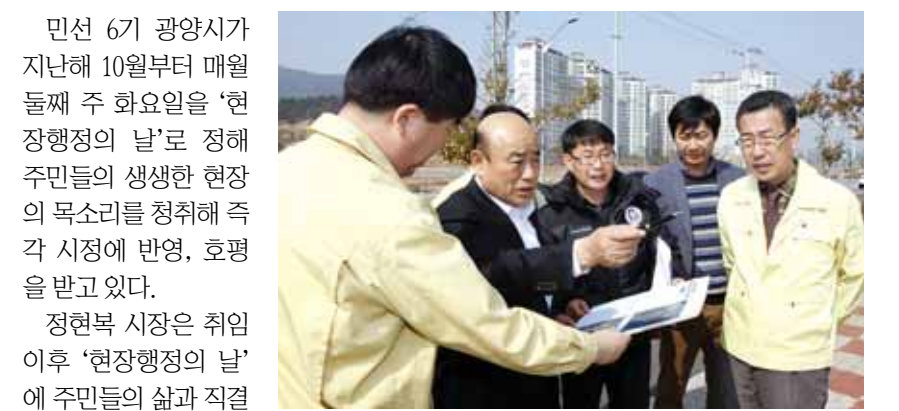
이 밖에도 전남 영상위원회에서 연중 3개 시를 아우르는 영화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만권 가족콘서트, 광양만권 음악회 합동음악회 등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국내외 문화·예술·공연·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3개 시는 앞으로 시립합창단 순회공연을 활발히 추진하고 예총 산하 단체의 교류 공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가칭 ‘광양만권 예술제’와 ‘이순신 예술제’ 등 3개 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축제를 개최해 동부권 문화·예술 광역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여수 중앙동 일원에서 열린 ‘제49회 여수 전남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현장행정의 날’

정현복시장, 생생한 목소리 청취 시정 반영 호평



민선 6기 광양시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현장행정의 날’로 정해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취해 즉각 시정에 반영, 호평을 받고 있다.

정현복 시장은 취임 이후 ‘현장행정의 날’에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현장과 집 단원발 발생지를 해당 실·과장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 현장 속에서 시민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에도 지난 16일 테니스장과 리틀 야구장이 조성되는 마동 체육공원 등 3곳을 방문했다. 테니스장은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야구장은 광양시 리틀 야구단의 건립 건의에 의해 조성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이날 해당부서 관계자들에게 “테니스 동호인들의 여가선용과 야구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옥곡 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장과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등 5차례에 걸쳐 14개소의 각종 사업·민원현장을 방문, 민원을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했다.

이 밖에도 도선국사 권역 단위 종합 정비현장, 광양 오일시장, 백운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현장, 실내체육관 하천주차장, 천변 산책로 파도안 조성지, 왕고로시 재배지역,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현장 등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광양시 김현찬 소통홍보 담당관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현장행정의 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행정의 날’은 우선 현지방문 대상지 3~4곳을 선정 후 현지방문 → 방문결과 부서 통보 → 검토 및 조치결과 민원인 통보 →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 순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봉강면 봉당리에 전원마을 생긴다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일원에 전원마을이 신규 조성된다.

광양시는 쇠퇴하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봉당지구 부지 2만432㎡에 21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조성마을 조

성이 나섰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억원(국비 8억, 시비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달부터 도로, 상·하수도, 부지 정리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2016년 3월까지 완공할 계

2만432㎡ 부지 21세대
12억 투입 2016년 완공

획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1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를 확정받은 이후 환경영향 평가,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행계획 수립, 용도

구역 변경, 입주자 모집,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봉당지구를 비롯해 앞으로 총 5개의 신규 전원마을을 조성해 급증하고 있는 농촌 거주 희망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광양 농촌 지역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지방지사		시내지국	
광 신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966-8375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광 광 부 722-9440	
정 읍 시 063531-5544	서 울 보 금 소 02313-5962	동 동 682-0175	
		동 동 264-2012	
		동 동 222-9054	
		동 동 325-5001	
		문 문 267-4782	
		백 백 872-4688	
		봉 봉 675-5530	
		상 상 525-3781	
		서 서 372-2352	
		송 송 369-0683	
		신 신 676-6605	
		안 안 312-7732	
		양 양 371-7658	
		오 오 306-7001	
		유 유 522-7752	
		우 우 512-8116	
		운 운 371-9818	
		월 월 961-9338	
		중 중 222-1986	
		충 충 224-6804	
		침 침 873-1600	
		청 청 973-2900	
		충 충 256-8272	
		치 치 376-6511	
		통 통 682-8112	
		하 하 959-1800	
		화 화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